



心實慈度  
攝信愛世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기-2143호-월간-회비증)

# 東友會報

1987年(檀紀4320年) 11月30日 第127號[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申在炫  
인쇄인 崔在旭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3 (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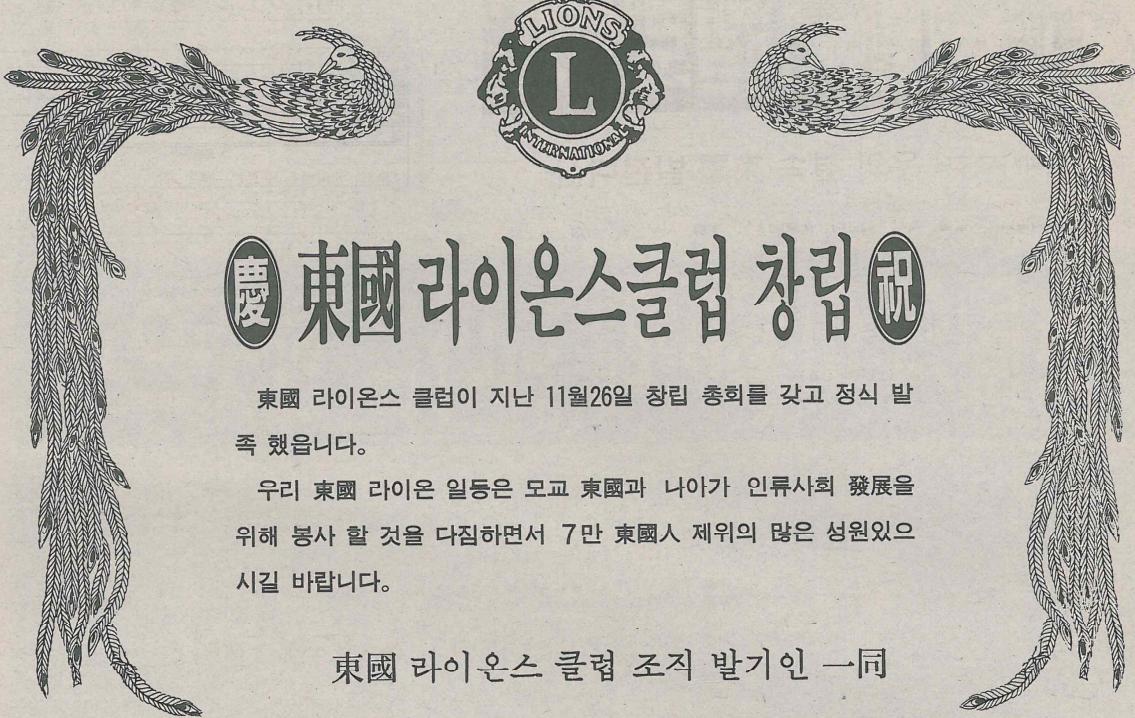
## 東國의 이름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12월18일에 만납시다

명실상부한 東國人 최대의 잔치 「제16회 東國人의 밤」행사가 오는 12월18일 오후 6시30분부터 성화빌딩 특설홀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3면)

경향각지의 同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내일의 東國榮光을 기약하는 이자리에, 백발선배에서 신입회원에 이르기까지 7만同門 모두가 빠짐없이 참석하여 東國의結束된 힘을 과시하게 되길 기대한다. (사진은 전년도 東國人의 밤)



## 慶 東國 라이온스 클럽 창립 祝

東國 라이온스 클럽이 지난 11월26일 창립 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 했습니다.

우리 東國 라이온 일등은 모교 東國과 나아가 인류사회 發展을 위해 봉사 할 것을 다짐하면서 7만 東國人 제위의 많은 성원있으시길 바랍니다.

### 東國 라이온스 클럽 조직 발기인一同

- |                                |                            |
|--------------------------------|----------------------------|
| 鄭在哲 (52 정치·동창회장·국회의원)          | 李智冠 (69 대원·동국대학교 총장)       |
| 文泰植 (49 전문·아주산업株 회장)           | 禹鍾植 (52 경제·태평양개발株 대표이사)    |
| 金聖涉 (53 정치·대한모방株 회장)           | 洪淳池 (52 정치·퍼시픽컨트롤즈株 대표이사)  |
| 秋東憲 (65 대원·株동서양 대표이사)          | 王豹淳 (55 정치·송곡여중고교 교장)      |
| 李鍾國 (57 영문·치안본부 제2차장)          | 金天壽 (57 경제·국민신용카드株 대표이사)   |
| 金鍾一 (58 법학·치안본부 정보1부장)         | 金永河 (58 정치·명곡해운株 대표이사)     |
| 鄭相永 (59 법학·株금강, 고려화학株 대표이사)    | 金東英 (60 정치·민주당부총재, 국회의원)   |
| 韓相根 (60 정치·천일제약株 대표이사)         | 金相圭 (61 법학·성암교회 목사)        |
| 朴翊柱 (61 정치·국회의원)               | 金旭 (61 경제·동진산업株 상무이사)      |
| 金濟局 (61 경제·강남고려병원 이사장)         | 張忠準 (61 경제·국회의원)           |
| 韓永輝 (61 경제·한영의료기株 대표이사)        | 朴忠一 (62 법학·신흥인쇄株 대표이사)     |
| 梁正五 (61 행원·株조원석유 대표이사)         | 鄭寅岳 (62 화학·株남양 대표이사)       |
| 金鎮燦 (62 법학·대우통신株 상무이사)         | 鄭在皓 (62 정치·주택은행 인천산곡동 지점장) |
| 元容璇 (63 영문·남양전기株 대표이사)         | 朴大赫 (63 생물·홍창실업 대표)        |
| 金正雄 (63 법학·변호사)                | 金容聖 (63 정치·외환은행 논현동 지점장)   |
| 白文基 (63 법학·상봉터미널株 대표이사)        | 崔炯佑 (63 정치·민주당부총재)         |
| 朴埈亨 (63 경제·신라교역株 대표이사)         | 池洙龜 (63 경제·지순요업 대표)        |
| 李和一 (65 상학·조선내화株 대표이사)         | 趙鍾學 (65 경제·株태양산업 대표이사)     |
| 鄭鉉化 (66 상학·태화기업株 대표이사)         | 林錦澤 (67 상학·신한은행 고덕동지점장)    |
| 禹昌昱 (67 농학·동명인쇄株 대표이사)         | 金聖洙 (68 경행·효신공사 대표)        |
| 李知映 (68 상학·대경산업株 대표이사 부사장)     | 洪平友 (70 경영·신라명과株 대표이사)     |
| 金熙玉 (72 법학·서울지검 검사)            | 南基一 (72 경영·삼연유지株 상무이사)     |
| 金洛天 (81 행원·도서출판고려원, 고려가株 대표이사) | 趙椿煥 (74 경영·세우통신 대표)        |
| 鄭然守 (74 과교·株태양사 전무이사)          | 徐承三 (78 경제·株녹십자 서울사무소장)    |
| 金東鎮 (79 법학·수원지법 판사)            | 李升洙 (82 식공·株버거팩코리아 대표이사)   |

東國人の 밤

18일로 연기

## 本회사무국서 우의·결속·東國 발전다짐

◇…금년도 제16회 「東國人の 밤」 행사는 오는 12월 18일 오후 6시30분 본회 시…◇  
 ◇…무국 (성화빌딩 특설홀)에서 열린다. 全東國人이 본회 사무국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본회 사무국건물에서 열리게 된 이번 행사에 7…◇  
 ◇…만동문 모두가 빠짐없이 참석하여 東國 1백주년의 荣光을 다짐하는 자리가되…◇  
 ◇…길 기대한다.

## 東國을 빛낸 同門축하연 겸 해

이번행사는 12월 16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관계로 당초 계획을 하루 늦춰 12월 18일에 열기로 최종 확정됐는데 7만동문 모두가 참석하여 1년동안 만나지 못했던 선후배·科友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東國발전을 위한 결속을 다지게 되기를 바란다.

본회에서는 주소가 파악된 동문과 각급 단위동우회로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동문기업의 생산품이나 각급東友會의 찬조증 등 행운상품 협찬을 접수중에 있으며 행사당일에도 별도로 접수된다.

성실히 뜻깊은 결속의 정이 될 행사에는 당일호접을

피하기 위해 ▲일반회원 접수 대 1~8번 ▲지방회원 접수 대 9~10번 ▲회장단·축하자 ·교간부 및 초청자 접수대

▲행운상품 접수대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접수하게 된다.

명실상부한 東國人최대의 잔치 1987년도 「東國人の 밤」 행사에 동문제위의 많은 참여를 비란다.

東國 라이온스 創總  
"모교와 사회에 봉사를 다짐,"

東國 LIONS 클럽 (회장=鄭在哲·52·政治·본회 회장) 창립총회가 지난 26일 오후 7시 앰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鄭在哲 회장, 鄭納基副社長 LION S 협회 309-J 지구총재 및 삼

IONS 클럽의 창립정신을 이어받아 後學들을 도우면서 東國과 나아가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鄭炳基총재의 치사및 姜喜ソス포츠 회장의 격려사와 기념품증정, 라이온스를藉로开端이 있었으며 사자와 티켓을 끌고 기념식을 마치고, 2부 연회를 통해 친목과 회발전을 다짐했다.

IONS 클럽의 창립정신을 이어받아 後學들을 도우면서 東國과 나아가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鄭炳基총재의 치사및 姜喜ソス포츠 회장의 격려사와 기념품증정, 라이온스를藉로开端이 있었으며 사자와 티켓을 끌고 기념식을 마치고, 2부 연회를 통해 친목과 회발전을 다짐했다.

## 각급단위 東友會 모임 활발

## 送年모임 등 논의, 후배격려도

▲淸州支部 (회장=崔鍾泰·61·법학·淸주 MBC 심의실장)에서는 지난 20월 29일 청주시내 대정식당에서 3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갖고 우의를 다졌다.

이날 모임에서 同會는 12월 중순경 부부동반으로 「在淸 東國인의 밤」을 개최키로 하는 등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새로 임명은 洪斗村 (60법학·淸주지검사무국장) 동문의 환영식을 경하기도 했다.

▲재경 영동동우회 (회장=鄭瑞利·57·정·전국 은행연합회 삼무이사)에서는 지난 10월 23일 신사동 「강릉옛집」에서 20여명

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갖고 우의를 다졌다.

同會는 이날 모임에서 지역발전과 동문회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기금 마련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상수회 (회장=柳潤善·57·농학·충남방직그룹 부회장) 이시는 지난 10월 27일 同會 柳潤善 회장에서 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3 / 4분기 정기모임을 갖고 회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친목을 다졌다.

연예 춤추는 회장단모임인 同會는 이날 池西규교를 비롯해 現모교 춤추는 회장단과 麗媛(59·경제) 교수, 학생부처장, 재학생 의장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근로장학사 동문회  
신임회장에 成塘吉동문

근로장학사 동문회 (회장=尹天泳·66·농학·서울고속터미널株 기획조정실장)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 모교교수신임에서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입원개선과 함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개선된 同會 일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成塘吉(64화학·모교 교수)

▲부회장 金益相(65법학·변호사) 旼永模(68경계·롯데신사株 홍보사업부장) 李昌白(75농학·농업증강회저작부대리)

▲총무 丁永吉(69통계·태경화학공업사장) 부총무 吳政錫(79농학·조선액주株 인천영업소장)

대의원회 간담회

## 선후배 유대강화주례

모교 역대 총대의원회 의장단과 재학생 총대의원회 의장단과의 간담회가 지난 9월 25일 테계로 대임정에서 張忠準(60경계·국회의원) 품문동 역대의장단과 麗媛(59·경제) 교수, 학생부처장, 재학생 의장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東友漫評

鄭雲耕



발전과 번영의 다짐

—公

告

## 「제16회 東國人の 밤」이 12월 18일에 개최됩니다

7만 東國인이 하나가 되어 내일의 東國榮光을 다짐하는 友情과 結束의 자리, 1987년도 「東國人の 밤」 큰잔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니 同門여러분이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이를 기회로 경황각지의 많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뜻깊은 결속의 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 행사에 7만동문 모두의 적

극적인 참여와 성원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제16회 東國人の 밤」 행사는 올해로 개교 81주년을 맞은 모교의 1백주년의 荣光을 향한 쟁취와 前進을 기약하는 시대인만큼 백발선배에서 신입회원에 이르기까지 全東國인이 하나가 되어 東國의 긍지를 드높입니다.

—아 래—

1. 日時=1987年12月18日(金)午後6時30分

2. 場所=본회사무국 (성화빌딩 특설홀)

(종로 2가 구 종로에식장거리·200대 동시주차 가능)

3. 會費=1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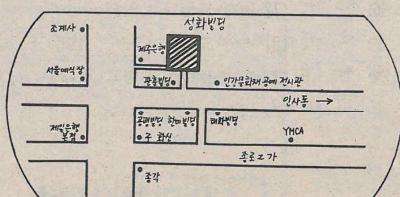
4. 主要行事

① 東國을 빛낸 同門축하파수여 ② 87년 파티 ③ 韓문기념관 청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事務局으로 문의바랍니다 (733-3991~3)

1987년 11월 30일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會長 鄭 哲





# 미래와 세계를 향한 '용맹정진'

## 母校의 교육개혁 5대 지표를 말한다

대학에서는 창되고 바쁘며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갈고 끌며 자자화함으로써 격차높은 인간을 지원한다. 그리하여 국가와 사회의 지도적 인물이 되게 한다.

이와같은 교육을 위해서는 사물을 넓고 깊게보고 생각하는 눈, 이것들을 제외세계에

### 교육과의 실질면 치중

파악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도구, 그리고 이를 다시 조작하여 정리하는 기본적 품성을 갖추게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가 지금 까지 보고 생각해온 패턴들을 널리 이해하고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는 폭넓은 독서가 필요하며 이 폭넓은 독서에는 외국어가 도구로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뿐만아니라 각종 새로운 자료를 스스로 체계있게 획득하여 처리하는 능력으로서 컴퓨터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적 기능을 갖추어야만 한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점에 적안한 교과과정의 종합적인 개선에 눈을 크게 둘리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해도 부분적임을 면치못하고 있다.

본교는 이설에 그세 유의하여 지난해부터 모든 교육개혁의 일정이 이루어져온 교과과정의 종합적인 개혁에着手하여 이미 지난해에 부분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고 금학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이 개혁내용의 대강을 간단히 요약하면 컴퓨터교육의 보편화, 교양필독도서의 생활화, 외국어학습의 혼합화, 학술전선용어의 일반화, 교과과정의 체계적 학습과 함께 다섯가지로 요약될수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시대에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사회를 이끌어갔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에서는 벌써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는 진입하고 있는 후기 산업시대에는 항상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하게되어 있다.

여기에서 정보의 획득과 처

의 실시를 확정해 놓고 있다. 대학교육은 중세이래 고전교육의 터전위에서 이루어져왔다. 여기에서 고전이라면 단순히 오래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 가치와 시점의 의의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항상 새롭게 응용되어야 한다고 평가되어진 책들이니. 이러한 교전을 읽음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사물들에 대해 깊은 통찰

### 교양 필독 도서의 생활화

읽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를 하여 지난해 2학기에 이미 「불교성전」 「논어」「삼국유사」「회령·로마신화」 등의 기원 등 다섯권을 읽게 한 바 있다.

지구촌의 시대에 있어 외국어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퍼져 위해서도 그려하며 개인의 사회적 지식과 진출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어야 하겠다. 그러하여 본교에서는 외국어교육원의 기존시설을 확장하고 지난해 9월에는 음영도서실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수

있다. 학문에 들어감에는 학습용어의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없이는 강의를 듣거나 전문서적을 읽어도 명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얻을

### 학술 전문 용어의 일반화

수 없고 학문적인 차원에서 전문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술적인 대화도 실제에 있어 불가능해진다. 이 점에 착안하여 각 학과의 학술용어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해설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있게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구상중에 있다. 이것이 본교에서는 외국어교육원의 기존시설을 확장하고 지난해 9월에는 음영도서실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수

있으므로 교과과정의 활성화는 각 학과의 학문적 구조에 입각하여 균형과 조화를 기하도

### 교과과정의 체계적합리화

특하는 교과과정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불행히도 그동안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러한 작업에 착안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과과정 운영에 많은 불합리성이 있어왔다.

본교에서는 지난 1년동안 각 학과별로 학문적 구조의 체계화 연구를 해왔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새로운 학문적 조류를 고려하면서 각 학과의 교과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이번 88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하게 되어있다.

이 모든 교육개혁은 본교가 항상 현재에 굳건히 서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와 세계를 함께 접지해가는 본교의 운명 전진하는 진취적 기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것이다.

## 會費…1년에 1만원

설원에 감사드립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격려속에 지난 2월 동문회관 건립의 밀비방이 월사부 국 이전을 비롯, 컴퓨터도입으로 사무자동화를 이루는 등 동문회가 거듭 발전하고 있음을니다.

동문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年會費는 동창회관건립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등 동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회費납부에 동문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협조를 바랍니다

#### ◇회비내역

- 一般會費…1만원
- 理事會費…5만원
- 常務理事…20만원
- 단체회비…회원수비례
- 해외동문회비…\$20
- 監事…20만원
- 副會長…50만원
- 會長…100만원

#### ◇납부안내

- ①은행지로이용 납부
- ②전화주시면 배분수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사무국(733-3991~3)으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프리자호텔을 불러주십시오”

서울프리자호텔 연회출장 서비스

### 시작부터 끝까지 저에게 맡기시고, 손님처럼 즐기십시오.

이제, 가장이나 회사에서의 각종 연회를 편리하고 품위있게 치르실 수 있습니다. 서울프리자호텔 연회출장 서비스는 소중한 모임을 더욱 만족스럽게 꾸며 드립니다. 작은 모임부터 큰 행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모임의 계획과 준비를 저희에게 맡기주십시오. 언제나도 진학하여 주시면 예산에 맞추어 성숙하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프리자호텔을 불러주십시오.

\* 출장 서비스가 번거로우신 분은 암번전화를 갖춘 프리자 연회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 및 문의: 전화771-2240 교환 7245-7249

##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 世界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터폰, MDF 설치
- 컴퓨터 및 SOFTWARE 용역

대표 趙椿煥 (74경영)

충구 을지로 4가 315-1 무정BD 510호

# '88학년도 新人生 모집

교무처 발표 내달 22·23日 전형실시

母校 88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이 지난 2일 확정, 발표되었다.

새로 확정된 모집요강을 보면 「先지원 後시합제」로 전환됨에 따라 입학원서접수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대입학령고시가 오는 12월 22일에 서울·慶州캠퍼스 각고사장에서 치뤄지고 합격자발표는 내년 1월 4일에 있게된다.

시험원칙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를 분리, 사정하여 선발하며, 학력고사성적·고등학교 내신성적으로 제 1지역지원자중에서 80%를 선발하고, 나머지 20%는 제 1지망발탁자, 제 2, 3지망지원자 중에서 삽입없이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특히 금번의 모집요강에서는 졸업정원폐지와 단과대학·신설등으로 모집구분이 조정되었는데 서울캠퍼스의 경우 법과대학, 예술대학신설, 사회과학대학으로서 평균적 평균적으로 폐지개편이 이뤄졌으며, 평균 2천 1백 80명을 모집하게 된다.

또한 경주캠퍼스는 법경대의 법정대·상경대로의 분리와 의대신설등으로 단행되었으며 총 1천 5백 30명을 모집한다.

계열별 성적반영비율은 올해부터 논술고사의 평점에 따라 인문·자연계가 학력고사70%, 내신30%를 반영하게되며, 어체에는 학력고사 30%, 내신30%, 실기40%를 반영기로 각각 확정 하였다.

## 安保研 학술회의

「전화기의 통일이념」 주제로

母校 안보연구소(소장=閔內天부총장)주최 「통일문제특강및 학술세미나」가 전화기의 통일이념이라는 주제아래 지난 11일 오후 2시 교수, 학생 1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캠퍼스 원효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閔内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문제는 민족 전체의 문제이므로 어떤 세력이나 일부가 아닌 전민족이 통



일군세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앞으로의 통일세대들이 통일국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韓·日 국제 학술회의

### 산업·자연研주최로

『단백질 및 효소에 관한 韓·日 국제 학술심포지엄』이 보교 산업기술연구소(소장=金直泰)와 자연과학연구소(소장=閔泰鎭) 주최로 지난 11일 오후

4시 모교 교수세미나실에서 교수, 학생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일간의 학술교류와 첨단 단백질공학소개에 취지를 두 이 심포지엄에서는 尹柱鎭(식품과), 閔泰鎭(화학과) 교수들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편, 모교 사범대 주최 제 18회 교육문제심포지움이 지난 7일 교육과 환경문제를 주제로 지난 7일 모교 동국관에서 열렸다.

## 축구부 준우승 차지

### 전국대학선수권 대회서

모교 축구부가 각종대회에서 둘째를 기록하며 부흥의 시대를 여고하고 있다.

지난 29일 안동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41회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에서 결승에 진출, 경희대에 0대 1로 패해 준우승이며 뒤를지만 1, 2학년을 주축으로 팀의 조직력과 기동력이 돋보여 내년시즌의 밝은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전국 17개 대학팀이 참가해 토너먼트방식으로 치뤄진 이번 대회에서 모교는 25일 준·우승대회에서 준우승팀인 아주대

에 승부차기끝에 신승했고, 26일에는 전국체전 우승팀인 동아대에 2대 0으로 승리했다.

## 고령호君 동메달

### 서울 국제레슬링대회

母校 레슬링부 고령호(체교 3)군이 「87서울국제레슬링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지난 7일 삼무체육관에서 개막된 자유형 62kg급에 출전한 고군은 3회전에서 프랑스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존 스미스에 패해 결승진출이 좌절됐다.

## 알

## 립

## 동문원고 모집

7만 東國家族의 代報紙인 東友會報에서는 全 東國人과 함께하는 會報가 되고자 통문 여러분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음을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원고내용

※詩 ..... 제한 없음  
※隨筆 ..... 15枚내외  
※同窓會發展을 위한 제언 ..... 15枚내외

### ◇제출처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보편집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사무국 편집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3-3991~3)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事務局

## 정보산업 大學院 신설

### 정보판리·산업공학과 설치해

보교당국은 지난 9일 정보산업대학원을 신설하는등 대학원전체의 일부가 편 및 학과의 신설, 일학정원의 증원내용 등을 확정 발표하였다.

기획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학원 편제 개편은 특수대학원인 정보산업대학원을 신설하여 그안에 정보관리학과와 산업공학과를 설치하는 한편 4개학과의 반사회와 과정을 신설한 것으로 문교당국으로부터 정식승인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박사학위과정이 신설된 학과는 미술·사회·국민문화·전자계산학과이다.

## 제3회 노의 국회

### 政科 학생회주최

「제3회 (復活元年) 大東民國國會」가母校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주최로 지난 12일 오후 2시 중강당에서 2백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민중을 위한 친진인과 정치가 부재하는 현재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비판하고 올바른 국회의 위상을 모색해 보는 계기로 마련된 이번 노의 국회에서는 평성당세력을 대변하는 민주주간단과 「大韓元豐論」 민족 정당인 「복혁신당」이 등장하여 대정부질의를 벌였다.

## 시계탑 건립추진

慶州, 모금운동 전개

보교 庆州캠퍼스 총대의원회(의장=장찬·국문 3)는 「캠퍼스 설립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계탑건립」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총대의원회가 지난 9월 학교측의 간담회를 통해 10주년 기념사업 시계탑건립을 제기, 학교측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는 이민주부 교수, 학생, 교직원, 일반인조금 등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총대의원회측은 「시계탑예산을 8백 50여만원으로 책정하고 높이 8m, 연꽃모양 8각기둥으로 내년 2월 말 완공, 교내 사거리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70년 경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외치며 분신자살을 했던 청계피복노동자 전태일씨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 母校生 3명구속

### 연세대 시위관련

지난 8일 연세대에서 있었던 「거국내각총회 범국민결의대회」와 관련, 韓美사법대학생회장회 최준호(교育 4)군 등 모교생 3명이 지난 10일자로 징시법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은 8일 대회가 끝난 뒤 기투로 진출, 투식전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어 이날 구속되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준호(교育 4-집시법위반)  
▲이재호(철학 2-집시법 및 국가보안법위반) ▲김교식(철학 2-  
〃)

## 桃園꽃집

화환 · 꽃바구니  
생화 · 신부화  
화분 · 통·서양란

TEL : 266-4571  
야간 : 602-4806

대표 辛承水 (72 경영)  
서울·중구 충무로 4 가 125-1  
진양빌딩 3 층 42호

## 신용·친절·봉사 대한가축원 영진가축원

- 외국 수입견
- 교환사육상담
- 각종 견구 취급
- 애완견분양

대표 서영진 (61 경제)

충구 충무로 5 가 73-2  
266-0731 · 267-0195  
265-0086

東國人은  
東國인이 경영하는  
나라항공으로

가장 저렴한 항공요금  
(후불도 가능)

## 나라航空

대표이사 安重五  
(65 영문)

776-7895 ~ 7  
752-4396 ~ 7

삼구빌딩 1103호  
(조선호텔후문 및 응천)



# 洪性裕 人生劇場

# 洪性裕의 아들

\* 전 6권 출판!  
※ 110일 만에 250,000부 돌파!



“  
무장독립군으로  
일본군을 대파한  
백야 김좌진 장군.  
그 빛나는 아버지의  
위업에 도전하는  
주막황제 金斗漢의  
끝없는 투쟁의 기록!  
”

**朝鮮日報 연재소설**  
**홍성유 인생극장 〈將軍의 아들〉!**  
**폭발적인 화제 속에 전 6권 완판!**

홍성유 인생극장 〈장군의 아들〉은 우리 시대의 진진하게 펼쳐나가는 사회소설이다. 임을한 현실성이 매한 분노와 절망감으로 시종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이소설은 박진감 넘치는 사건진가로 껌뻑한 일단 생생한 인물 묘사를 통해 소설의 참재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金佐鎮 장군의 아들 金斗漢은 임꺽정의 배짱과 돈키호테의 진지함, 대부의 균성으로 빼앗긴 땅에서 수백개의 황제로 등극, 日帝의 무리를 험손에 쥐고 뒤흔들며 민족혼을 불태웠던 情義 넘치는 仁漢으로, 꿈바라는 자의 보호자로 드디어는 政界의 거물로 격동의 한국 근대사에 우뚝섰던 우리 時代 가장 든든한 대장부이며 大自由人이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作家가 아심적으로 써낸 이 작품 속의 특이한 인물들은 기상천외한 행위를 연출하면서 우리를 기막힌 인생무대로 초대한다. 첫 폐이지를 넘기자마자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우리가 걸어온 군대정치·사회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일깨우고 있다.

日帝의 우리들을 한 주먹에 쥐고 뒤흔들었던  
격동의 시대 풍운아들의 극적인 삶과 죽음!  
물론 속의 기행과 폭력, 뜨거운 애정과 의리!  
한국 근대사의 생생한 모습 〈將軍의 아들〉!

에도 正史에도 기록되지 않은 숱한 사람  
들이 땅을 갈망한 일본 악주자 그 거리를  
배회하는 가랑비방이, 절대부들 민족 수난의 암흑기에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여 자유와 정의의 편에  
서서 눈부시게 활약했던 金斗漢이 비인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긴 감동의 고통!

\* 전 6권 / 국판 - 2권 300면/내외 / 각권 2,3,300원 / 날씨판매 \* 시장에 유통됩니다